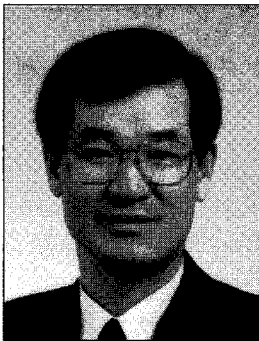


신제품 개발·품질 향상, 포장 선진화실현

기계 자동화 통해 대외 경쟁 발전 가속



◀ 윤영욱
(주)선양 대표이사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내 포장산업은 그 중요도가 점차 부각됨에 따라 무한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포장산업의 다품종 소량화 시대에 맞춰 각 기업들은 자사만의 독특한 제품개발로 자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포장관련 산업이 불모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1970~80년대, 포장산업의 필요성을 인식, 자사의 발전뿐 아닌 국가 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코자 노력하면서 발전해 온 연포장업체 (주)선양을 찾았다.

크라운제과에서 부자재 구매담당을 해왔던 (주)선양의 윤영욱 사장은 이후 포장재 개발업무를 하게 되면서 '포장'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

접히 연관돼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산업일 것이라 판단, 포장의 장래성 하나를 믿고 포장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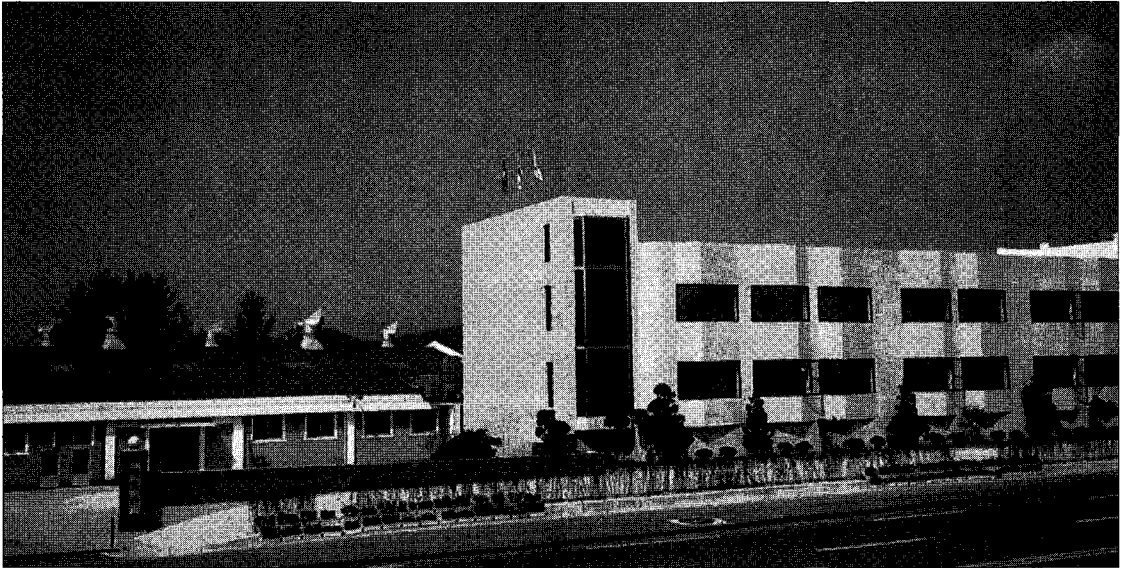
1980년 6월 한인인쇄로 창립된 (주)선양은 3년 뒤인 1983년 지금의 경기도 군포로 공장을 이전, 비로서 (주)선양으로 법인을 전환하며 국내 포장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발전을 거듭한 결과 올해로 법인전환 20주년을 맞게 됐다.

지난 1988년, 제 2공장을 완공한데 이어 (주)선양은 제27회 수출의 날 100만불 탑을 수상하고 매출액 100억원을 달성하는 등 국내 연포장업체로서 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윤영욱 사장은 "상품포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식품 및 포장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창업 이래 20년간 한 길을 걸어오며 습득한 포장 및 인쇄기술의 노하우(Know-How)가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국내 포장 산업 발전 계기 마련

현재 (주)선양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낵류 및 비스킷을 비롯해 치즈육가공 제품, 풍선, 전자부품 포장재 등 식품에서부터 비식품류까지



▲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주)선양

국내 연포장 산업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최첨단 설비와 기술로 PS 필름을 생산, 3층 구조 필름의 다층 브라운 필름(MULTILAYER BLOWN FILM)을 개발, 연신 강도가 좋고 꼬임의 우수성 뿐 아니라 투명성과 광택성으로 고속 포장에 적합한 특징을 자랑한다. 이를 이용해 (주)선양은 사탕싸게지, 편지봉투 창틀, 신선도 필름, 라면용기 및 뚜껑재로 사용되는 폴리스틸렌 필름, 저온 열봉합성 필름, 항균 필름과 같은 다양한 용도의 필름을 제조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국산기계 텐션 컨트롤과 칼라컨트롤로 작업을 이뤄 국내 칼라컨트롤 개발의 계기를 마련한 윤영욱 사장. 지난 82년 당시 선진국의 기계들이 판치던 국내 포장업체에 국산기계를 적용했을 때 우려를 했던 주변의 만류에도 그는 국내 산업의 최신 기술력에 대한 애착으로 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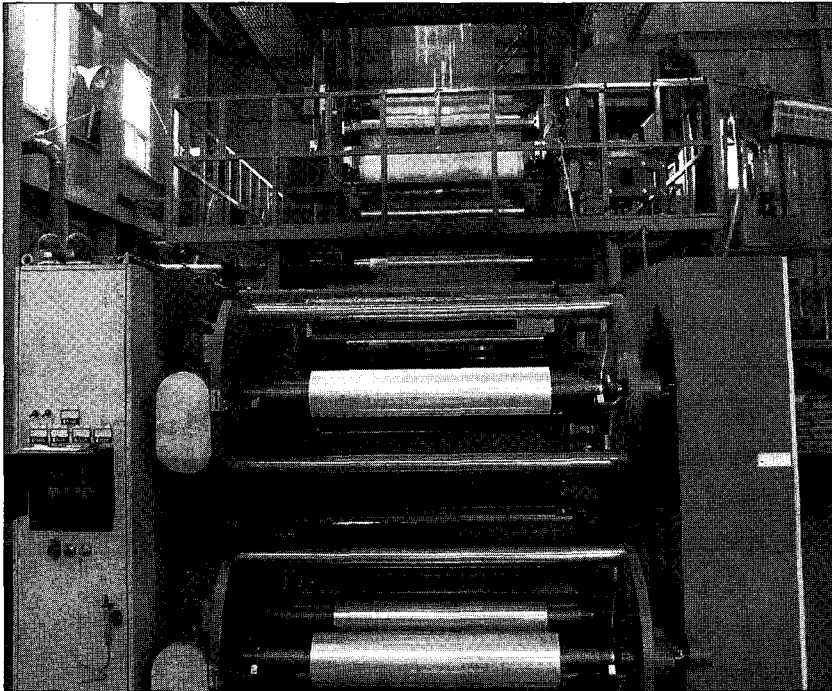
한 시도를 피하게 된다.

윤 사장의 이런 노력으로 지금의 선양이 최고의 기술력과 인쇄기로 고객 요구에 부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현재 선양은 그라비아 인쇄기를 비롯해 압출 코팅기, 드라이 라미네이션, 슬리터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그라비아 인쇄기는 각종 필름류, 셀로판, 지류에 고속인쇄가 가능할 뿐 아니라 풍부한 색채와 명암, 농담의 폭이 넓은 특징을 지닌다. 이외에도 완벽한 건조 장치로 잔류용제가 없어 고객을 만족시키고 있다.

윤 사장은 (주)선양의 발전은 업계 차별화를 꾀하는 R&D팀의 연구 결과가 한 몫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선양 R&D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흐름에 적극 대처하며 신제품 개발 및 품질 향상에 주력하



◀ (주)선양의 다층 브라운 필름기
(MULTILAYER BLOWN FILM)

고 있다. 이를 위해 우수한 전문인력과 각종 첨단 정밀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 국내·외 여러 연구기관과 기업들과의 기술 교류와 협력으로 기술축적을 이룬 결과, IONOMER FILM, 항균 PS FILM 등 다양한 기능성 FILM을 개발해 냈다.

또한 HOLOGRAM 풍선 등 다양한 제품에 신기술을 접목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운영욱 사장은 "(주)선양의 R&D팀은 고객이 원하는 최고의 품질을 구현하기 위해 각종 첨단기자재를 이용한 분석과 신기술 적용을 위한 각종 TEST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존 제품의 품질향상과 공정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저와 포장업체 동반자적 관계 기대

운영욱 사장은 창립 당시부터 "내 가정이 잘돼야 일도 한다"는 경영방침으로 선양인들의 복지에도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가족수당과 자녀 학자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사원들의 휴식과 여가 제공에 노력하고 있는 등 선양인들의 클럽활동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가족적인 분위기를 피하며 선양을 "내 회사"처럼 여기며 발전을 모색한 (주)선양은 윤 사장의 수익창출을 위한 경영방침과 100여명 사원들의 노력으로 몇해전 모(母)회사가 부도를 맞았을 때도 일타없이 발전해왔다.

포장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포장업체와 유



▲ (주)선양의 최첨단 설비와 기술로 제조된 생산제품

저(user)가 서로 수평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유저들의 일방적인 횡포를 때때로 감수해야만 하는 수직적 관계의 국내 포장산업 현실을 볼 때 가장 착잡했다는 윤영욱 사장. 그는 국내 포장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저와 포장업체간의 동반자적 관계가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한다.

현재 (사)한국포장협회에서 초대부터 연포장분과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윤영욱 사장. 그래서 그의 포장에 대한 애착은 남다를 수 밖에 없다.

윤 사장은 연포장 뿐 아닌 포장업체가 제값받기 운동과 불법스카우트 금지를 통해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대체재질 개발로 가격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남아 국가의

국내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계 자동화와 경량기 개발을 통한 원가와 인원 절감으로 자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그는 (주)선양은 다품종 소량화 시대에 적합한 기계개발을 통해 국외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해 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21세기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해 '대 고객 서비스의 최상화'를 지상목표로 삼고 있는 (주)선양.

앞으로도 (주)선양은 저렴하면서도 기능이 다양한 포장재 개발과 공급을 통해 고객의 이익창출은 물론 국내 포장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

박초혜 기자